"경희도약 위해 하나될 때"

특별 대담 — 총장 공영일

공영일 총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학교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총장을 만나 보았다.(편집자)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년은 우리학교에 있어 가장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우리학교 전통에 부응하여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단행하셨다고 봅니다. 이에 지난해는 교양과목 특별시험제도, 교수업적평가제, 장의평가제, 교수계약제 실시, 교과과정 개편과 일부 유사학과 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를 간단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사회의 흐름이 그렇듯이 대학사회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해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준비의 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자체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 상호간의 협조로 하나됨을 이루어 내는 한해였습니다.

대학변화 요구받는 시대

그 결실은 교과과정개편으로 앞속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교과과정은 학생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교수님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1년동안 진행해 교양·전공 돌다 완전히 개편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해낼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그만둔 대학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이 어려운 교과과정개편을 일단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의 여러가지 협조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해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은 교과과정개편, 교수업적평가제 등을 올해 전면실시하기 위한 준비기였으므로 실제 변화를 이룩했다기 보다는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크나큰 몸부림이 연중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변한것은 제도자체의 변화보다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거기서 하나로 합쳐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를 위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이루어낼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교과과정개편의 근본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의 교과과정은 가르치는 사람위주의 교과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필요, 학생들의 선택, 학생들을 위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과과정이라고 특징 지을수 있습니다. 교과과정운영도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과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게끔 선택의 기회를 넓힐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새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줬습니다. 과거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과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교과과정의 실상을 뜯어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점도 낮추고 시간표도 완전히 종합시간표를 짜서 이제는 학생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2개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수원캠퍼스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를 경영계열로, 전자과, 전파과를 전자·전파계열로 계열화 했는데 다른 과의 계열화 계획은 어떠한지요.

=작년에 1차적으로 계열화를 했습니다. 계열화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과 구별없이 입학을 하지만 학과는 존재하고, 학과가 과정을 열고 강의를 진행하는 체제입니다. 계열화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방학중 밤 늦도록 본관의 불이 꺼지지 않는 등 경영진 및 실무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방학중 논의된 것은 물론 올해 사업계획이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작업, 변화를 준비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작년에 도입한 제도, 변화를 실행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도자체만 도입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기대한 효과가 실제로 평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 실천에 옮기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방학동안에는 주로 새로운 제도를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 기획실 등에서는 직원들이 방학동안에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교직원들 특히 학과장님들도 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방학에는 학교업무에 있어 단축근무나 휴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역시 쉬운것은 아니다. 제도만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관된 동향은 과거에는 모든 일을 중앙부서에서 하고 학과와 대학은 따라오기만 하던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과과정, 교수업적평가 등 대부분이 대학과 학과가 중심이 되어 모든것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주도해야 이런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가지고 단과대학에 따라 어떻게 시행되는지 차이가 납니다. 학교는 이런 시행된 결과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달리해 단과대학별로 차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대별로 차등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평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만을 위해 일을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제인 것입니다. 안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뒤지고, 여러 제도도입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고 대학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의 평가가 우리에게 도전임은 틀림없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 이것을 계기로 학교가 모든 면에서 한 수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과 행정제도의 발전뿐만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발전을 위해 도전을 위해 우리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자신감을 다질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대학평가따라 행정차별

—작년에 평가기획단에서 작성한 경희발전계획안에 재정확보 방안과 개혁의 주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발전계획을 목표로 했습니다. 많은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열려고 했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이 안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놓고 서로 의견을 토론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덜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나고 나면 충분히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발전계획이 다수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넓게 보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바탕이 되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재학생이 대학을 좋아해야 하고 동문이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전가능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도와주면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것이 재원이 되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미의 발전계획이 아니라 발전계획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발전계획을 통해 우리가 대학을 알아야 되고 재원을 생성해 내여야 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대학입니다.

—작년에 행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성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제획을 학생·교수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잘 안됩니다. 여러가지 회의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바쁘다보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대학주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춘다고 감추는 것이 아닌데 알려줄 것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학주보가 적극적으로 소스(source)에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교직원들이 공개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같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문제지요. 관료사회의 틀을 깨는 것이 관건이지요. 또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학교가 무엇을 감추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우리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로 대학주보가 창간 40주년을 맞습니다. 대학주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학주보는 스스로 변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자체에서 여러 고민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대학주보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어내서 구성원들이 바라는 형태의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 신문이 읽히지 않는 신문이었는데 독자가 읽어주는 신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학주보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진지하게 독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은 학교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노력과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담·정리 : 배종근 편집장

올해는 실질적 제도 정착과 의식개혁의 해

대학평가—전구성원 발전위한 계기 삼아야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뉴욕매입

이제, 세계금융의 중심부 뉴욕을 사고 싶다!

1년간의 현지화교육끝에 발령받은 뉴욕 현지법인에서의 생활 —
회사의 해외독신과정제에 따라 제약없이 자유롭게 꿈은 현지화의 체험을 실분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이곳 뉴욕법인에서의 내 첫 임무는 해외투자 —
금융개방의 물결속에서 우리 시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의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또 다른 승부수가 될것이다.
국내최대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국제화의 참뜻답게 조금은 거대한 야망을 품어본다.
세계금융의 상상부 뉴욕에 내 이름 석자를 반드시 남기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뉴욕을 사고 말리라…

보험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
국내최대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종섭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채용 상담, 문의 : 775-6264(구송회)

보험도 품질보증시대!
Quality
기본지키기에 시작합니다